



황룡사 장육, 영묘사 장육 설화의 재해석

저자 (Authors)	차윤정
출처 (Source)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7 , 2016.6, 1-21(21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96736
APA Style	차윤정 (2016). 황룡사 장육, 영묘사 장육.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7, 1-2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0 15:5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황룡사 장육, 영묘사 장육

—緣起 설화의 재해석—

차 윤 정*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황룡사 장육, 영묘사 장육 |
| II. '장육상'의 탄생 | IV. 맺음말 |

[한글요약] 『三國遺事』에는 황룡사 장육석가삼존상, 영묘사 장육삼존상, 금산사의 미륵장육상, 용장사의 미륵장육상 등 4존의 장육상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본 고찰은 이 4존의 불상 중 가장 먼저 조성된 황룡사 상과 그로부터 반세기 정도 후에 조성된 영묘사 불상을 통해, 한국 고대 불상의 명칭에 등장했던 '丈六'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배경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인도에서의 '장육'은 凡人과는 다른 부처의 초월적인 면모를 표현하는 妙相의 하나로, 실제 造像과는 관계없는 경전상의 개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4세기 초에 부처의 相好를 觀하는 법과 그 공덕을 설한 『觀佛三昧海經』 등이 漢譯되면서, '丈六' 개념이 造像時의 주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集神州三寶感通錄』의 불상 관련 神異談에서 확인되는데, 강가나 바다에서 '발견된' 인도 기원의 一또는 기원했다고 믿은 一 아유왕 瑞像과는 달리 중국에서 '조성된' 상들은 丈六(또는 丈八)이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다.

* 불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대표 논저: 2011, 「황룡사지 출토 불교조각」, 『신라사학보』 23; 2014, 『석굴암 기초자료집성』, 경주시·불국사박물관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5, 「회화와 공예품, 석조물에 표현된 건축용 철물」, 『황룡사: 와전 및 철물 복원고증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2 신라 왕경의 사찰 II- 『삼국유사』 「탑상」편 연구

황룡사 장육상 造像緣起는 중국의 아육왕 瑞像談과 『觀佛三昧海經』을 배경으로 하는 '장육상' 개념이 합쳐져 성립된 설화로, 한국 고대 불교문화의 복합적인 성격을 암시하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된다. 황룡사 본존불에서 처음 등장한 장육상이라는 용어는 이후 큰 규모의 불상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정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묘사 장육상을 만들 때 온 성 안의 남녀가 불상의 재료인 진흙을 날랐고, 이후 막대한 금액을 들여 蓋金을 했다는 기록을 보면 상의 규모가 거대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용장사 석불도 장육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장육으로 분류되는 상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았던 듯하다.

황룡사 본존불 鑄成이라는 국가적 관심사의 大業에 처음 등장한 '장육불'이라는 개념이 이후 한국 고대 불교문화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게 되었는지 등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로 현존하는 자료의 양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飛鳥寺 장육, 山田寺 丈六 등 주요한 사찰에 안치되었던 장육상에 대한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는 일본의 예는 한국의 상황을 추정 복원할 수 있는 좋은 보완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영문요약]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Samguk Yusa; 三國遺事) includes accounts of four zhang liu (i. e., approximately 16ft in height; 丈六) Buddha statues including the zhang liu Shakyamuni Buddha triad at Hwangnyongsa Temple (皇龍寺), the zhang liu Buddha triad at Yeongmyosa Temple (靈妙寺), the zhang liu Maitreya Bodhisattva statue at Geumsansa Temple (金山寺), and the zhang liu Maitreya Bodhisattva statue at Yongjangsa Temple (茸長寺). Through the Buddha statue at Hwangnyongsa Temple, which was the first of these four Buddha statues to be created, and the one at Yeongmyosa Temple, which was created approximately five decades later, this study focuses on elucidating the meaning and background of the expression "[one] zhang [and] six [chi] ([yi] zhang liu [chi]; [一]丈 六[尺])," which was used in the names of Buddha statues in ancient Korea.

In India, zhang liu generally had been one of the mysterious symbols expressing Buddhas' transcendent aspects distinguishable from ordinary humans and had merely constituted a concept in Buddhist sutras unrelated to the creation of actual Buddha statues. In China, however, with the

translation in the early 4th century of the Scripture of kind such as the Sutra on the Ocean-like Samadhi of the Visualization of the Buddha (GuanfoSanmeihaijing; 觀佛三昧海經), which stated that one could achieve liberation (moksha; 解脫) by practicing concentration (samadhi; 三昧) and seeing images of Buddhas, one zhang and six chi, the supposed height of the historical Buddha—i. e., the concept of zhang liu—came to be established a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creation of statues. Such a situation can be confirmed in Buddha statue-related miracle tales in the Record of Miraculous Responses to the Three Jewels in China (Jishenzhou Sanbao Gantonglu; 集神州三寶感通錄), where, unlike Ashoka miracle images (阿育王 瑞像) originating—or believed to originate—from India “discovered” by rivers or the sea, statues “created” in China are described with the new expression zhang liu (or “[one] zhang [and] eight [chi] [ly] zhang ba [chi]; [一]丈 八[尺]”).

The legend about the zhang liu statue at Hwangnyongsa Temple is a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the Ashoka miracle image legend from China and the concept of “zhang liu statues” deriving from the Sutra on the Ocean-like Samadhi of the Visualization of the Buddha. First used for the main Buddha statue at Hwangnyongsa Temple, the term “zhang liu statues” subsequently seems to have become established as a common noun referring to large Buddha statues. Judging from the record that, in creating the zhang liu statue for Yeongmyosa Temple, all men and women in the city carried clay, the material used for the Buddha statue, and that an enormous sum of money was subsequently used for the gilding, statues apparently were colossal. However, judging from the fact that the stone Buddha statue at Yongjangsa Temple, which is not very large, likewise is recorded as a zhang liu statue, the sizes of statues classified as zhang liu do not seem to have been consistent.

As clues for understanding the position that the concept of the “zhang liu Buddha”—which first appeared during the creation of the main Buddha statue for Hwangnyongsa Temple, a great project of national concern—subsequently came to occupy in Buddhist culture in ancient Korea, extant data are extremely meager. However, the case of Japan, where remaining data on zhang liu Buddha statues enshrined at major temples such as the zhang liu Buddha statue at Asukadera Temple (飛鳥寺) and the zhang liu

4 신라 왕경의 사찰 II- 『삼국유사』 「탑상」편 연구

Buddha statue at Yamadadera Temple (山田寺) are comparatively abundant, provides good supplementary data that make possible the estimation and restoration of the situation in Korea, which are left for future research.

[주제어] 황룡사(Hwangnyongsa Temple), 靈妙寺(Yeongmyosa Temple), 丈六像(zhang liu, Sixteen-foot Buddha statue), 觀佛三昧海經(GuanfoSanmeihajing, Sutra on the Ocean-like Samadhi of the Visualization of the Buddha)

I. 머리말

『三國遺事』에는 ‘丈六像’이라는 이름이 붙은 4존의 불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塔像」篇 ‘皇龍寺丈六’조에 기록된 황룡사 장육석가삼존상, 「塔像」篇 ‘靈妙寺丈六’조와 「義解」篇 ‘良志使錫’조에 나오는 영묘사 장육삼존상, 「義解」篇 ‘關東楓岳鉢淵藪石記’에 기록된 금산사의 미륵장육상, 「義解」篇 ‘賢瑜伽 海華嚴’에 나오는 용장사의 미륵장육상이 그것이다. 각 상들에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황룡사 장육석가삼존상 >

신라 제24대 진흥왕 즉위 14년 계유(553) 2월에 대궐을 龍宮 남쪽에 지으려 하는데 황룡이 그곳에 나타났으므로, 이에 고쳐서 절로 삼고 황룡사라 했다. 30년 기축년(569)에 담을 쌓고 17년 만에 겨우 완성했다. 얼마 안 가서 바다 남쪽에서 큰 배 한 척이 떠 와서 河曲縣 絲浦—지금의 蔚州 谷浦다—에 닿았다. 이 배를 검사해보니 公文이 있었다. 인도 아유왕이 黃鐵 5만 7천 근과 黃金 3만 푼을 모아서—「別傳」에는 철 40만 7천 근과 금 1천 냥이라 했는데 아마 잘못된 것 같다. 혹 3만 7천 근이

라고도 한다—석가의 불상 셋을 주조하려다가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배에 실어 바다에 띄우면서 “인연 있는 국토에 가서 丈六尊像을 이루어 달라”고 축원했다는 것이다. 한 부처와 두 보살의 상도 모형으로 만들어 함께 실려 있었다. 하곡현의 관원이 문서로써 아뢰었다. 왕은 그 고을 성 동쪽의 높고 메마른 땅을 골라 東竺寺를 세워 그 세 불상을 모시게 하고 그 금과 철은 서울로 수송하여 大建 6년 갑오(574) 3월—절 기록에는 계사년(573) 10월 17일이라 했다—에 장육존상을 주조했는데 단번에 이루어졌다. 그 무게는 3만 5천 7근으로 황금 1만 1백 98푼이 들었으며 두 보살상에는 철 1만 2천근과 황금 1만 1백 36푼이 들었다. 장육존상을 황룡사에 모셨더니, 그 이듬해에 불상에서 눈물이 발꿈치까지 흘러내려 땅이 한 자나 젖었다. 그것은 대왕이 세상을 떠날 조짐이었다.1)

35년(574) 3월에 쇠를 녹여 부어 황룡사의 장육상을 만들었다. 구리의 중량이 3만 5천 7근이며 도금한 중량은 1만 1백 9십 8푼이었다.

36년(575)에 황룡사의 장육상에서 눈물이 흘러 발꿈치까지 흘러내렸다.2)

< 영묘사 장육삼존상 >

善德王이 절을 짓고 塑像을 만든 내력은 ‘良志法師傳’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경덕왕 즉위 23년(764)에 장육존상을 금색으로 다시 칠했는데, 그 비용이 租 2만 3천 7백 섬이었다. ‘양지전’에서는 불상을 처음 만들 때의 비용이라 하였다. 이 두 설을 그대로 기록해둔다.3)

양지스님의 그 조상이나 고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고, 다만 신라 善德王 때에 자취를 나타냈을 뿐이다. … (中略) … 또 筆札에도 능하여 靈廟寺 장육삼존상과 천왕상, 또 殿塔의

1) 『三國遺事』 권4 「塔像」 ‘皇龍寺丈六’.

2)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제4 眞興王.

3) 『三國遺事』 권4 「塔像」 ‘靈妙寺丈六’.

6 신라 왕경의 사찰 II- 『삼국유사』 「탑상」 편 연구

기와와 天王寺 탑 밑의 팔부신장, 法林寺의 主佛三尊과 좌우 金剛神 등이 모두 그가 만든 것이다. 영묘사와 범림사의 현판을 썼고, 또 일찍이 벽돌을 새겨서 작은 탑 하나를 만들고, 아울러 삼천불을 만들어, 그 탑을 절 안에 모셔 두고 공경했다. 그가 영묘사의 장육상을 만들 때에는 入定하여 삼매에서 본 부처를 모형으로 삼았는데, 온 성 안의 남자와 여자들이 다투어 진흙을 운반하였다. … (中略) … 장육상을 처음 만들 때에 든 비용은 곡식 2만 3천 7백석이었다.—혹은 이 비용이 금빛을 칠할 때 든 것이라고도 한다.⁴⁾

< 금산사 미륵장육상 >

眞表律師는 全州 碧骨郡 都那山村 大井里 사람이다. 나이 12 세에 출가할 뜻을 가지니 아버지가 허락하였다. 律師는 金山藪 順濟法師에게 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 (中略) … 율사가 教法을 받고 金山寺를 세우려고 산에서 내려와 大淵津에 이르니 … (中略) … 또 미륵보살이 감동하여 도솔천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율사에게 계법을 주니 이에 율사는 시주를 권하여 미륵장육상을 鑄成하고, 또 미륵보살이 내려와서 계법을 주는 모양을 金堂 남쪽 벽에 그렸다. 불상은 갑진년(764) 6월 9일에 완성하여 병오년(766) 5월 1일에 금당에 모셨으니, 이 해가 大曆 원년이었다.⁵⁾

< 용장사 미륵장육상 >

瑜伽宗의 祖師 고승 大賢은 남산 葺長寺에 살았다. 그 절에는 미륵석조장육상이 있었는데, 대현이 늘 불상의 주위를 돌면 불상도 또한 대현을 따라 얼굴을 돌렸다.⁶⁾

4) 『三國遺事』 권5 「義解」 '良志使錫'.

5) 『三國遺事』 권5 「義解」 '關東楓岳鉢淵藪石記'.

6) 『三國遺事』 권5 「義解」 '賢瑜伽 海華嚴'.

이상의 기록에 의하면 황룡사 장육석가삼존상은 진흥왕대인 573년 또는 574년에 국가적인 佛事로 조성된 상이고, 영묘사 장육삼존상은 그보다 반세기 이상 후 선덕여왕대(632~647년 재위)에 良志에 의해 조성된 상으로 사찰과 불상 조성을 발원한 것은 왕이었다. 또 8세기대에는 금산사 금당의 미륵장육상, 용장사 미륵장육상이 조성되었다.

본 고찰은 『삼국유사』에 ‘장육상’으로 기록된 4구의 불상 중 가장 먼저 조성된 황룡사 상과 그로부터 반세기 이상 뒤에 조성된 영묘사 불상을 통해, 한국 고대 불상의 명칭에 등장했던 ‘장육’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배경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阿育王 설화를 배경으로 한 황룡사 장육상 造像緣起는 국가적인 관심사로 조성된 불상에 瑞像으로서의 후광을 더하고 있다. 7) 瑞像 설화를 배경으로 한 이상의 명칭에 ‘장육’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황룡사 장육상의 조상 연기를 재해석하고 후대의 영묘사 장육의 의미와 비교·고찰해보고자 하였다.

II. ‘장육상’의 탄생

‘장육상’은 ‘1장 6척의 불상’이라는 의미로, (부처의) ‘等身像’이라고도 한다. 즉 석가모니 부처의 身量과 동일한 크기로 조성된 상을 일컫는 말이다. 석가모니 부처의 身量を 1장 6척으로 기록한 경전은 매우 많은데, 부처의 傳記를 기록한 경전 중에

7) 김리나, 1979, 「皇龍寺의 丈六尊像과 新羅의 阿育王像系 佛像」, 『震檀學報』 46-47, pp. 195~215; 同著, 1995,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pp. 61~84 재수록.

서도 중요시되는 『方廣大莊嚴經』을 보면,

이때 頻婆娑羅王이 말하였다. ‘보살이 부처님 도를 이루어, 1장 6척의 큰 몸은 순금 빛깔이며, 32상과 80중호, 10명호를 완전히 갖추셨고, 知見을 이미 얻으셨으며, 五眼을 성취하고 六通을 증득하셨으며, 범천·제석천·사천왕이 모두 받들어 섬긴다고 오래전부터 들었다.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니 마음이 매우 기쁘다.’⁸⁾

라고 하였으며, 說一體有部の 律藏 『十誦律』에 대한 주석서인 『薩婆多毘尼毘婆沙』에서는,

부처의 衣量을 말하자면, 佛身은 丈六이며, 當人은 그 반이다.⁹⁾

라고 하여, 부처와 凡人的 身量을 비교하였다. 또 부처의 相好를 觀하는 법과 그 공덕을 설한 『觀佛三昧海經』에서도,

如來의 巨身은 丈六이다.¹⁰⁾

라고 하며, 부처의 모습의 장엄함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인도에서 불상 造像이 시작되었을 때 이와 같은 경전상의 身量에 의거하여 상을 조성했던 것은 아니었다. 유명한 優填王 造像 설화를 보면, 忉利天에 올라간 석가모니를 그리워하다 병에 걸린 코삼비의 優填王이 여래의 형상을 牛頭栴檀으로 만들었는데, 그 높이는 5尺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쉬라바스티의 波斯匿王도 紫磨金으로 높이 5척의 여래상을 만들어 공양하였다고 한

8) 『方廣大莊嚴經』 卷第十二 「轉法輪品之二」. T187: 612c07-11.

9) 『薩婆多毘尼毘婆沙』 卷第九. T1440: 561a15.

10) 『佛說觀佛三昧海經』 卷第一 「序觀地品第二」. T643: 648c19.

다.11) 優填王이 불상을 처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전설에 불과하지만, 여래의 모습 그대로 상을 만들었다는 이 전설에서조차 丈六이라는 身量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실제의 불상이 처음 조성되기 시작한 간다라에서의 예를 보아도 丈六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造像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간다라 불상은 대부분 등신대나 그보다 약간 작은 크기이고, 이보다 큰 대형 상은 드물다. 이제까지 간다라에서 발견된 가장 큰 석조상(탁트이바히 출토)은 두광과 발목 아랫부분을 제외한 몸 크기가 약 2.3m이다.12) 간다라 불상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명문을 보아도, ‘丈六’, ‘等身’ 등은 물론 상의 크기에 관한 어떤 언급도 발견되지 않는다.13) 또 하나의 불상 제작 중심지였던 마투라에서도 상황은 유사한데, 상의 크기는 소형상을 제외하면 대부분 등신대를 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하며, 간다라에 비해 다수 발견되는 명문에서도 크기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14)

인도에서 造像과 관련하여 상의 크기를 의식하게 된 것은 굽타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Śilpa-śāstra라고 하는 미술의 規範書가 출현하여 造像法의 체계를 잡은 것은 굽타시대 이후 불교가 밀교화 되어가던 시기지만, 굽타시대에 편찬된 Purāṇa(힌두교의 성스러운 신화)들에 이미 Śilpa-śāstra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造像에 관한 규범은 굽타시대 중기 또는 초기

11) 優填王과 波斯匿王의 造像 설화는 여러 경전에 나오지만, 그중에서도 비교적 잘 정리된 내용을 『增壹阿含經』에서 볼 수 있다. 『增壹阿含經』 卷第二十八 「聽法品第三十六」. T125: 705b-708c.

12) 이주형, 2003, 『간다라 미술』, 사계절, p. 136.

13) 塚本啓祥, 1996, 『インド仏教碑銘の研究』 I TEXT, NOTE, 和譯, 京都: 平樂寺書店, pp. 941~1018 참조.

14) 塚本啓祥, 앞의 책, pp. 543~940 참조.

에 성립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¹⁵⁾ 이 造像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度量制로, 상의 奉納者 또는 造像 작업자 자신의 손가락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指量制(Aṅgamāna)와 髮際에서 턱 끝까지의 길이 talam을 기준으로 하는 Talam量制(Talamāna)를 併用하여 상의 크기와 비례를 정하였다.¹⁶⁾ 이와 같은 造像法 체계에 있어서 경전에 나오는 '장육'이라는 부처의 身量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인도에서 '丈六'은 造像의 像量에 사용된 개념이 아니라 부처의 장엄한 相容을 묘사한 표현이었던 것이다.

'丈六'이라는 표현이 造像과 연결된 것은 중국에서였다. 『高僧傳』(梁 慧皎, 519년), 『續高僧傳』(唐 道宣, 645년), 『集神州三寶感通錄』(唐 道宣, 664년) 등의 문헌에는 後漢代부터 唐代 초기까지의 다양한 사건과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불상에 관련된 내용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특히 『集神州三寶感通錄』 中卷은 각종 神異를 보인 불상에 관한 기록을 모은 문헌으로,¹⁷⁾ 수록된 40건의 불상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불상이 중국에서 '발견된 상'인가, 중국에서 '조성된 상'인가에 따라 장육상과 관련된 흥미로운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표 1]은 『集神州三寶感通錄』 中卷에 수록된 중국에서 '발견된' 불상군을 정리한 것이고, [표 2]는 중국에서 '조성된' 불상군을 정리한 것이다.¹⁸⁾

15) 逸見梅榮, 1978, 『佛像の形式』, 東京: 東出版, p. 9.

16) 逸見梅榮, 앞의 책, pp. 19~22.

17) 『高僧傳』, 『續高僧傳』에 실린 불상 관련 기사는 거의 수록되어 있다.

18) 40건 중 4건은 '발견' 혹은 '조성' 여부를 알 수 없고, 像名과 크기에서도 특기할 만한 점이 없어 제외하였다.

표 1. 중국에서 ‘발견된’ 불상군 [『集神州三寶感通錄』 中卷 수록]

연번	명칭	연대	크기	출처 (발견지)	봉안처	神異
1	優填王 釋迦倚像	後漢 明帝	-	인도(?)	宮	明帝의 꿈에 나왔던 상
2	(阿)育王 金佛像	吳	-	建鄴	建初寺	皓의 불상 모 독을 부스럼으 로 별함
3	阿育王 石像 2구 (惟衛·迦葉銘)	西晉 建興元年 (313)	7척	吳郡 婁縣 松江 하류	通玄寺	浮江
4	七國所送金 銅像	西晉	-	泰山	郎公寺	祥瑞
5	阿育王 金像	東晉 咸和年間 (326~334)	-	丹陽 張侯橋浦	楊都 長 干寺 大興善 寺	放光 등
6	阿育王 金像	東晉 永和6년(350)	7척5 촌	荊州 城北	江陵 長沙寺	遼降, 夜出時西 門, 放光 등
7	金像	東晉	3척	吳興 川	吳興 周 玘家	出水, 放光 등
8	金像	東晉 義熙元年 (405)	4척	(建鄴) 宮 東掖門	瓦官寺	出地, 放光
9	太子思惟像	東晉	-	沂江 西上林間	徐 州吳寺	放光
10	阿育王 文殊師 利菩 薩像	東晉	-	南海	廬山	放光 등
11	石像	北魏 正光元年 (520)	1장8 척 + α (頭部)	涼州	瑞像寺	山裂出現 등
12	銅坐像	宋 元嘉12년 (435)	3척	東陽 長山	-	불상이 문힌 곳 만 타지 않음

12 신라 왕경의 사찰 II - 『삼국유사』 「탑상」편 연구

13	彌勒金像	宋 元嘉14년 (437)	1척	長安 六重寺	-	放光
14	金坐像	宋	-	江陵	-	放光 등
15	金像	宋 元嘉14년 (437)	2척1 촌	浦	-	放光 광배명문: '建 武六年歲在庚 子瓦 官寺道人法新 僧行所造'
16	金菩薩坐像	宋 元嘉15년 (438)	1척	平西府 上明 野澤	-	불상이 문힌 곳 만 타지 않음
17	扶南國石像	齊 建元年間 (479~482)	-	-	番禺 毘耶離 精舍	遇火輕舉, 放 光, 淚汗
18	優填王 檀像	梁 天監元年 (502)	5척	天竺 舍衛城 祇桓寺	楊都 太極殿	武帝의 꿈에 나 타남 放光
19	育王 大石像	梁	-	-	剡縣	山崩其內佛 現
20	鐵礦石像	北周 建德3년 (574)	3장	宜州	宜州 北山 大像寺	放光
21	阿彌陀佛五 十菩薩像	隋	-	西域 天竺	-	漢 明帝 때 가져온 상
22	瑞石影像	隋 開皇10년 (590)	8촌	西域	曲池 日嚴寺	불 때마다 각각 다른 瑞象이 보임

표 2. 중국에서 ‘발견된’ 불상군 [『集神州三寶感通錄』 中卷 수록]

연번	명칭	연대	크기	발원자 · 봉안처	神異
1	丈八金銅無量壽佛	東晉 寧康3년(302) 4월 8일	丈八	釋道安 襄陽 檀溪寺	像夜出西遊萬山 등
2	戴逵 作 木像	東晉	-	(戴逵 作) 會稽山 靈寶寺	香瑞
3	釋迦文一丈六尺金像	東晉 太元2년(377)	一丈六尺	沙門 慧護 吳郡 紹靈寺	花 白龍 출현 등
4	沮渠蒙遜 石崖塑瑞像	北涼	-	沮渠蒙遜 涼州	常自經行 등
5	沮渠蒙遜 爲母造丈六石像	北涼	丈六	沮渠蒙遜 涼州 山寺	淚下若泉 등
6	文殊金像	宋 元嘉2년(425)	-	劉式之	放光 등
7	菩薩圖	宋	-	康王 荊州城 법당	진흙을 발라도 다시 나타남
8	桐盾感通作佛像	宋 泰始年間(465~471)	-	何敬叔	放光 등
9	丈八金像	宋	丈八	徐州刺史 王仲德 彭城 宋王寺	淚汗
10	丈八金像	梁 天監年間(502~519) 초	丈八	光宅寺	鑄造 때의 神異
11	等身金銀像 2구	梁	等身	梁武帝 宮 重雲殿	불상을 파괴하려다 벌을 받아 죽음 陳代에 바다로 들

					어감
12	觀音金像	東魏 天平年間 (534~537)	-	定州 孫敬德	관음상이 형리의 갈 을 대신 맞춤
13	丈八石像	北齊	丈八	沙門僧護 晉州 靈石寺	淚汗 등
14	丈六金銅大 像并二菩薩	隋 開皇年間 (581~600)	丈六	蔣州 興皇寺	불이 나자 저질로 자 리를 옮김

위의 표를 참조하면 각종 神異를 보여 문헌에 수록된 불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표 1]의 ‘발견된’ 상의 발견지는 揚子江 주변에 위치한 도시이거나 ‘浦’, ‘江’, ‘川’, ‘澤’ 등 물가인 곳이 많다. 建鄴(現 南京, 揚子江 하류, [표 1]-2, 8), 吳郡 婁縣 松江 하류([표 1]-3), 丹陽 張候橋浦([표 1]-5), 荊州(現 湖北省 江陵, 揚子江 중하류, [표 1]-6), 吳興 川([표 1]-7), 沂江([표 1]-9), 南海([표 1]-10), 江陵(荊江 北岸, [표 1]-14), 浦([표 1]-15), 平西府 上明 野澤([표 1]-16) 등이다.

② ①의 물가에서 발견된 상들은 ‘(阿)育王 金佛像’([표 1]-2), ‘阿育王 石像’([표 1]-3), ‘阿育王 金像’([표 1]-5, 6), ‘阿育王 文殊師利菩薩像’([표 1]-10) 등 인도에서 유래한 一또는 유래했다고 믿는 阿育王 瑞像인 경우가 많다. 또 발견지를 알 수 없거나 인도에서 왔다고 하는 상에도 ‘優填王 釋迦倚像’([표 1]-1), ‘優填王 檀像’([표 1]-18), ‘育王 大石像’([표 1]-19) 등 명칭이 붙어 있다.¹⁹⁾

③ ‘발견된’ 불상군은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8촌에서부터 3장에 이르는 것까지 규모가 다양한데, 1장 6척으로 기록된 상은 없다.

④ [표 2]의 중국에서 ‘조성된’ 상은 無量壽佛, 釋迦文金像, 文殊金像, 觀音金像, 尊名 없이 木·石·金·金銀의 素材만 밝힌 상 등 다양한데,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丈六’ 또는 ‘丈八’, ‘等身’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중국에서 ‘발견된’ 상들은 대체로 물가에서 출현하는데, 명칭은 ‘阿育王像’, ‘優填王像’ 등 인도계 瑞像이 많고, 그 크기가 다양하지만 丈六으로 기록된 상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에서 ‘조성된’ 상들의 경우 尊名에 관계없이 丈六 또는 丈八로 기록된 상들이 많다는 사실도 인지된다. 즉, ‘인도에서 온’ 상의 경우와 달리, ‘중국에서 만든’ 상의 경우 丈六 또는 丈八이라는 특정한 크기 개념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 불교도들이 존상을 만들면서 또는 그 존상에 대해 기록하면서, 丈六이라는 개념에 대해 특별히 인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다수의 경전에 부처의 身量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인도에서의 造像 활동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丈六 개념이 중국에서는 왜 중요시된 것일까?

이와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觀佛三昧海經』을 비롯해 5세기 전반에 한역된 觀佛·觀菩薩의 行法을 설한 경전들의 영향이 있

19) 阿育王像 계통 불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고. Alexander C. Soper, 1959, *Literary Evidence for Early Buddhist Art in China*, Ascona: Artibus Asiae Publishers; 김리나, 앞의 논문.

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觀佛三昧海經』은 『觀佛三昧經』, 『觀佛經』이라고도 하며, 東晋代에 인도 출신 승려 佛陀跋陀羅(覺賢, 359~429)에 의해 398년부터 421년에 걸쳐 번역되었다. 『觀佛三昧海經』의 성립 장소에 관해서는 많은 異說이 있지만, 이 경전에서 묘사된 부처의 상호와 간다라 불상의 形貌가 일치하고 또 수록된 전설이 간다라 불교조각의 재제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간다라 지방이나 그 부근에서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0권 12품으로 구성된 이 경전의 내용은 부처님이 迦毘羅城 尼拘樓陀林에서 아버지 淨飯王과 양모 倏曇彌 등을 위해 설법한 것으로, 觀佛三昧에 들어 부처의 色身을 觀하면 결국 부처와 다를 바 없게 되어 해탈을 얻을 수 있음을 밝혔다.²¹⁾

부처의 妙相을 觀하고 念佛 대상으로 기술한 『觀佛三昧海經』에 설해진 63개의 부처의 妙相 중 58번째 相이 ‘巨身丈六’이다.²²⁾ 譯經된 장소가 東晋 권역내이고,²³⁾ 東晋에서 조성된 상에 처음으로 丈六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丈六像 조성은 『觀佛三昧海經』과 깊은 관련을 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나오는 ‘丈八’이라는 크기에 대해서는 『觀無量壽佛經』에서 무량수불의 化身の 크기를 묘사하며,

20) 5세기 전반 한역된 觀佛類 경전에 대해서는 山田明爾, 1967, 「觀佛三昧と三十二相 : 大乘實踐道成立の周辺」, 『仏教學研究』 24, pp. 27~48 참조.

21) 章輝玉, 1997, 「觀佛三昧經」,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신문사 편, 불교신문사, pp. 215~217.

22) 逸見梅榮, 앞의 책, pp. 35~36. 경전마다 다양한 32相 80種好의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책 附表 1. 32相表, 附表 2. 80種好相表 참조.

23) 佛馱跋陀羅의 譯經에 대해서는 慧皎 撰, 『高僧傳』 卷第二 「譯經中」 ‘佛馱跋陀羅六’. T2059: 334b26-335c14 참조.

혹은 허공을 가득 채우는 커다란 몸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1장 6척이나 8척이 되는 작은 몸으로 나타나시기도 하느니라.²⁴⁾

라고 하였는데, [표 2]의 1번 기록에서 보듯이 釋 道安이 丈八金銅無量壽佛을 발원하였다고 되어 있어, '丈八' 개념 역시 觀佛 경전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Ⅲ. 황룡사 장육, 영묘사 장육

황룡사 장육상 造像緣起 설화에 중국 阿育王 瑞像 神異談의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²⁵⁾ 앞 장에서 살펴본 『集神州三寶感通錄』을 비롯하여, 『高僧傳』, 『梁書』, 『廣弘明集』 등에 기록된 阿育王像은 대부분 바닷가나 강어귀에서 발견되며, 放光을 하여 祥瑞를 나타내고, 땀을 흘려 나라의 번고를 알리는 神異를 보인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아육왕이 보낸 배가 바다를 거쳐 신라에 도착했다거나 눈물을 흘려 진흥왕의 죽음을 예고했다는 황룡사 장육상의 연기설화와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앞 장에서 보았듯이 중국의 아육왕상 설화에는 '장육'이라는 언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集神州三寶感通錄』에 의하면 인도로부터 와서 중국인들에 의해 '발견된' 아육왕상은 그 크기가 8촌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편 '장육' 또는 '丈八'이라는 부처의 身量으로 묘사된 상들은 『觀佛三昧海經』

24) 『觀無量壽佛經』. T365: 344c01-02. '於十方國變現自在 或現大身 滿虛空中 或現小身 丈六八尺'.

25) 김리나, 앞의 논문 참조.

등 觀佛類 경전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서 '조성된' 상들로, 아육왕상과 같은 외래계 상들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아육왕조차도 실패했던 석가 '장육상' 주조를 신라의 진흥왕은 단번에 이루었다는 황룡사 장육상 설화는 중국에서는 별개였던 두 종류의 緣起 설화, 즉 중국에서 '발견된' 阿育王 瑞像설화와 중국에서 '조성된' 丈六像 설화가 합쳐져 형성된 복합적인 성격의 造像緣起로 분석된다.

경전 등의 불교 관련 문헌에 기록된 설화는 해당 문헌의 전래와 함께 퍼져나가 다양한 파생담을 생성하게 된다. 『觀佛三昧海經』에 나오는 佛影 설화가 좋은 예인데, 法顯, 玄奘 등의 求法 기록에서 거의 원형을 유지하던 佛影談은 우리나라에서는 『三國遺事』의 「魚山佛影」, 佛影寺 창건 연기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되었다.²⁶⁾ 결국 황룡사 장육상 연기설화는 중국에서 전파된 阿育王 瑞像談이 아육왕이 보낸 鑄佛 재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로 1차 변형을 거친 후, 거기에 『觀佛三昧海經』을 배경으로 한 장육상 개념이 더해져 형성된 설화로 분석할 수 있다.

신라 최대의 사찰 황룡사의 본존불 연기설화에서 아육왕 瑞像 설화와 함께 처음 등장한 장육상 개념은 이후 큰 규모의 불상을 일컫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자리잡았던 것 같다. 반세기 정도 후에 조성된 영묘사 장육상에 관한 기록을 보면, 제작자인 양지스님의 신통력에 관한 記述은 있지만 불상 자체가 특별한 능력을 보였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양지스님이 상을 조성할 때 온 성안의 남녀들이 다투어 진흙을 날랐다는 기록이나, 경덕왕 때 蓋金을 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는 기록, 발원

26) 김승호, 2010, 「한중간(韓中間) 불경(佛經)설화의 수용방식과 변이양상-관불삼매경(觀佛三昧經)의 불영담(佛影談)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48, pp. 35~66.

자가 왕이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상의 규모가 거대하였던 것만은 거의 확실시된다.

그러나 장육상이라고 해서 모두 규모가 거대했던 것 같지는 않다. 현재 남산 葺長寺址에 남아 있는 원형대좌의 석불좌상을 『三國遺事』 기록상의 미륵석조장육상이라고 한다면, 그리 거대하지 않은 규모의 상도 장육으로 지칭된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산사 미륵장육상은 상을 금당보다 먼저 鑄成했다는 것으로 보아 또 상당한 규모였을 가능성이 있다.

IV. 맺 음 말

인도에서의 ‘丈六’은 凡人과는 다른 부처의 초월적인 면모를 표현하는 妙相의 하나로, 실제 造像과는 관계없는 경전상의 개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4세기 초에 觀佛三昧에 들어 부처의 色身을 觀하면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觀佛三昧海經』 등이 漢譯되면서, 丈六 개념이 造像時의 주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集神州三寶感通錄』의 불상 관련 神異談에서도 확인되는데, 강가나 바다에서 ‘발견된’ 인도 기원의 아유왕 瑞像과는 달리 중국에서 ‘조성된’ 상들은 丈六(또는 丈八)이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묘사되었다.

황룡사 장육상 造像緣起는 중국의 아유왕 瑞像談과 『觀佛三昧海經』 등을 배경으로 하는 ‘장육상’ 개념이 합쳐져 성립된 설화로, 한국 고대 불교문화의 복합적인 성격을 암시하는 또 하나의 자료이다. 황룡사 본존불에서 처음 등장한 장육상이라는 용어는 온 성 안의 남녀가 불상의 재료인 진흙을 날랐다는 등의 영묘사 기록을 보면 거대한 상을 일컫는 보통 명사의 개념

으로 일반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장육으로 분류되는 상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았던 듯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용장사 석불좌상도 장육으로 지칭되었다.

황룡사 본존불 鑄成이라는 국가적 관심사의 大業에 처음 등장한 '장육불'이라는 개념이 이후 한국 고대 불교문화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게 되었는지 등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로 현존하는 자료의 양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飛鳥寺 장육, 山田寺 丈六 등 주요한 사찰에 안치되었던 장육상에 대한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는 일본의 예는 한국의 상황을 추정 복원할 수 있는 좋은 보완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자료 및 단행본

- 『佛說觀佛三昧海經』, 『佛說觀無量壽佛經』, 『增壹阿含經』, 『高僧傳』, 『集神州三寶感通錄』, 『三國遺事』.

2. 논문류

- 김리나, 1979, 「皇龍寺의 丈六尊像과 新羅의 阿育王像系 佛像」, 『震檀學報』 46-47, pp. 195~215; 同著, 1995,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pp. 61~84 재수록.
- 김승호, 2010, 「한중간(韓中間) 불경(佛經)설화의 수용방식과 변이양상-관불삼매경(觀佛三昧經)의 불영담(佛影談)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48, pp. 35~66.
- 이주형, 2003, 『간다라 미술』, 사계절.
- 章輝玉, 1997, 「觀佛三昧經」,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신문사 편, 불교신문사.
- 山田明爾, 1967, 「觀仏三昧と三十二相: 大乘實踐道成立の周辺」, 『仏教學研究』 24, pp. 274~8.
- 逸見梅榮, 1978, 『仏像の形式』, 東京: 東出版.
- 塚本啓祥, 1996, 『インド仏教碑銘の研究』 I TEXT, NOTE, 和譯, 京都: 平樂寺書店.
- Alexander C. Soper, 1959, *Literary Evidence for Early Buddhist Art in China*, Ascona: Artibus Asiae Publishers.